

인터넷에서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 번쯤 영화에서 보았던 근사한 카지노에서 예쁜 딜러들의 안내를 받으며 룰렛이나 바카라 같은 도박에 빠져보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생각은 통상 회망사항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런 희망을 가상세계에서 나마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는 안겠지만 어느 정도 욕구를 풀어주지 않을까 싶다. 오픈타운(대표 천봉우)은 일반인들의 이런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카지노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타운은 사이버 카지노 웹사이트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도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픈타운의 카지노에서는 블랙잭, 바카라, 슬롯, 포커, 룰렛, 고스톱 등 6가지 게임을 가상의 돈을 걸고 즐길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회원제로 운영된다.

5명의 전문인력으로 불과 일년반만에 미 인터넷 웹사이트 스토리에 상위권에 올라선 오픈타운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글/ 변완수 기자>

국내외이용자를 위해 게임버전을 국영문버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오픈카지노의 게임들은 라스베가스 룰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 그래픽 등 모든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만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각각의 게임들은 멀티미디어 제작 툴인 MM Director로 개발되어 인터넷브라우저상의 Shockwave 플러그인을 통해 실행되며 가상머니는 ASP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물론 Shockwave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게임중간에도 가상머니는 게임서버에 갱신되어 게임우수자들에게는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인터넷 게임들의 대다수가 매킨토시와 같은 전용 OS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없었으나 오픈카지노에서는 맥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맥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가상머니게임 단계에서 리얼머니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오픈타운의 천이사는 “최초 아이템 선정에 2개월 이상을 투자하여 철저한 시장분석을 거친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아이템 선정에 있어 국내 이용자보다는 해외인터넷 이용자들을 주타겟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기에 오늘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사업착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천이사는 “일년이상을 밤낮없이 일해온 직원들의 노력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덧붙였다.

천이사는 오픈타운의 예비 광고주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유치 할 수 있는 웹트랜드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 매1개월 단위로 일일 접속 횟수를 분석, 가공하고 있다. 광고주들이 객관적으로 오픈타운의 광고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타운은 개설 일년만인 작년 12월부터는 일일평균접속 횟수 200만을 기록하면서 사이트 방문객의 1회 평균 체류시간이 1시간 20분에 달할정도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스토리에 인터넷 게임 분야중 전세계 14위 랭크, Best of the Plat award 가 선정한 올해의 최우수 사이트에 선정 되기도 했다. 5명의 전문인력으로 불과 일년반만에 일궈낸 성과로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오픈타운은 국내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모델로 향후 성장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